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실크로드여행사
불교성지순례 전문
02)720-9600

불교신문

행복한 순례의 길!
MAYA TOUR
마야투어
02)722-9001
www.MAYATOUR.kr
머물지 않음으로 그 이름을 나그네라 한다 - 능엄경 중에서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9년 1월 10일 (2015년 / 단기 4348년 음력 11월20일) i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3072호 토

봉은사와 백남준 봉선사와 이광수 미당과 선운사…

'거장 품은 사찰' 발굴 계승 절실하다

불교가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근현대 문화예술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01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실시됐지만 "근대 역사적 가치에 대한 조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교의 문화유산은 지정이 매우 미비하다"는 의견이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지난해 12월 말 "불교가 대중성을 띄기 위해서는 근현대 문화인물을 적극 발굴해 다양한 추모 사업을 펼쳐야 한다"며 "사찰에서 이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서양의 경우 문화예술인이 머물던 장소가 관광명소로 정비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세계적인 문호 괴테가 사색하며 걸었던 '괴테의 길'은 독일 하이델베르크를 찾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가봐야 할 명소로 유명하다. 서울 남산보다 낮은 언덕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며 마치 괴테를 만난 듯, 카메라를 누르며 감동을 느낀다. 또 〈수레바퀴 밑에서〉의 저자 헤르만헤세가 노년을 보낸 스위스의 작은 마을 몬타뇰라와 아본디오 성당은 스위스를 찾는 사람이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다.

아프리카 대륙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케냐의 암보셀리국립공원. 헤밍웨이가 그곳에 머물면서 〈킬로만자로의 눈〉을 집필하면서 알려진 암보셀리 국립공원은 전 세계인을 불러 모으고 있다.

반면 국내 불교계는 문화예술인 선양 작업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태행 백남준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백남준은 예술이란 분야를 통해 한국불교를 전 세계에 알렸다. 유해가 봉은사에 있다는 것 자체로 많은 외국인들이 봉은사를 찾는 이유가 된다. 그들이 봉은사에 와서 백남준이 시도했던 불교 정신과 예술의 만남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 기념물이 있다면 봉은사가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태행 상임이사는 "불교는 아직까지 수백 년 된 건축물과 문화유산에 집착하고 있다. 이제는 사찰의 스토리를 다양하게 넓혀야 한다. 문화는 가장 적합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봉은사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 전 세계 예술인을 대상으로 백남준 기념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싶다. 그 자체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봉은사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춘원 이광수와 남양주 봉선사, 미당 서정주와 서울 개운사·고창 선운사, 청록파 시인 조지훈과 월정사, 근대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과 수덕사 등 근현대 대다수의 인물이 불교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이들에 대한 자료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불교가 적극 나서 문화예술인 발굴 및 선양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성지순례의 名家
더존투어
■중남미, 아프리카, 발칸, 미주, 유럽, 러시아 전문
■셰도나 명상투어 전문
■중국, 인도, 동남아, 부탄, 티벳, 스리랑카 직영
02.738.7661

신년 인터뷰/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9면

올해는 조계사 성역화불사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종단의 주요 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들은 지난 5일 시무식을 마치고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원력을 다졌다. 신재호 기자

"성역화불사·100인 대중공사 진력"

중앙종무기관 시무식…"맡은 소임 최선" 다짐

불기 2559(2015)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이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비롭고 넉넉했기에 많은 일들을 원만하게 감당해낼 수 있었다"며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은 새해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종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종단사에 기억될 오늘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며 조계사 성역화 불사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종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총무원장 스님은 "문화의 조화로움과 삶의 조화로움이 공존하는, 이 시대 불교의 상징으로서 조계사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며 "대중공사를 통해 종단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도단체, 사회단체, 출가와 재가가 함께 모여 종단과 불교가 나아갈 길을 찾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지향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는 것이고 그 근간이다. 이를 위해서 부처님은 전법의 길을 나선 것이며, 올 한해도 우리 모두는 그 길 위에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붓다로 살자. 종도와 불자들께 웃음을 전하면서 힘차게 한 해를 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계원장 일면스님과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인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각각 종무원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심주완 조계종 종무원조합 위원장은 종무원들을 대표해 "종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실천이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며, 지금 여기에서 종단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발원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논산 쌍계사 불상 등 17건 보물지정 예고 조선후기 성보 다수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삼국유사〉 권1~2 등 1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삼국유사 권1~2는 2권 1책만이 남아 있어 자료로서 한계는 있으나, 임신본(壬申本·1512년) 이전에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임신본의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나 이 판본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삼국유사와 더불어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들은 대부분 조선후기 불교 문화재로 구성됐다.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1605년에 조성된 석가여래삼불좌상으로 문화재청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조각승인 원오스님의 현존 최고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은 1610년과 1646년에 제작된 불상으로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중생들을 반야용선에 태우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장면과 이를 맞이하는 아미타불 일행, 극락조등 극락의 장엄한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한 불화다. 이밖에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보은 법주사 동종'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 '부여 무량사 삼전패'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 달마대사 벽화' 등 17건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社告

'불교신문' 한글 제호로 변경했습니다

불교신문

불교신문 제호가 2015년 1월 1일 한글〈사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신문은 불교문화가 한글 꼴 디자인을 이끌었던 한글 창제 초기의 얼을 오늘날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큰 의미를 지닌 '석보체'를 기본 자형으로 하여 제호를 한글로 제작, 변경했습니다.

전통 석보체 원형 유지…가독성 높여

변경 디자인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내포한 석보체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계승하여 그 원형을 유지하되 가독성을 높이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글꼴 제작디자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글꼴 디자이너' 안상수(파주 타이포그라피학교 교장, 전 안그라픽스 대표) 교수의 책임 하에 진행하였으며 교계는 물론 독자를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기존 석보체의 굵기, 자음 모음 간 간격, 비율 등을 부분 수정하여 균형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불교신문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전통을 시대변화에 맞게 한글로 새롭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55년간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2015년 한글 제호 변경을 시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불교신문으로 교계는 물론 국민 속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보체는…

석보체는 조선 세종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찬술한 최초의 한글 불서인 〈석보상절〉을 바탕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 만든 글꼴입니다. 석보상절 활자체 원형의 형태적 특징을 일부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미감을 더하여 지난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불교문화는 한국 정신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의 수많은 유산 중에서도 불경 언해본은 당시 문화적 수준이나 기술력뿐만 아니라 한글의 어문학적, 조형적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석보상절은 우리글을 창제한 이후 최초로 번역해 펴낸 산문체 문학작품이자 기초 불서이며, 최초의 한글 놋쇠활자본입니다. 또한, 그 활자체는 한글 창제의 원리에 충실한 조형적 특징을 지녀 한글 꼴 디자인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새해 새 모습으로 단장합니다

불기 2559년 불교신문이 새롭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연재물을 배치했습니다.

◎ 독자가 주인되는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일선에서 포교하는 스님들과 사찰 운영의 주역인 신도들의 일상을 심층 보도합니다. 신행 봉사 친목 등 사찰 활동을 상세하게 싣겠습니다.

◎ 부처님 가르침을 쉽고 풍부하게 전달합니다.

재가자 참선 지도 경험이 풍부한 박희승 교수가 '재가자를 위한 생활참선'을, 장영섭 기자가 불교에 대한 궁금한 점을 쉽게 풀어쓰는 '불교, 묻고 답하다'를 연재합니다. 포교원장을 역임한 혜총스님은 정토신앙의 핵심인 '아미타경'을 강설합니다.

◎ 불교문학 중흥을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조정래 고은 김성동 등 불교가 배출한 기라성 같은 작가는 물론 신진 문학가들의 글과 목소리를 담을 예정입니다.

◎ 생활상담·건강·성보 다시보기 …

부부관계 자녀교육 고부갈등 애정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불교를 통해 해법을 찾는 상담코너, 스님들의 건강법을 배우는 건강면을 신설했습니다. 성보와 민족문화유산, 역사 등 인문지식을 함양하는 기획도 다수 신설했습니다. 이외 스님 신도들의 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는 한편, 한국불교가 나아가야할 길을 조명하는 심도 깊은 기획으로 독자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누군가는 가야할 길을 새롭게 열어 가는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에서 아래와 같은 분들을 모십니다.
佛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漢文이 필수라고 깊이 인식하는 사부대중
漢文을 제대로 익힌 바탕 위에 불교 이해의 틀을 세우고자 하는 사부대중
공부에 즐거움과 보람이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부대중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부대중
수행 공동체에는 양보와 타협, 조화가 필수임을 깊이 공감하는 사부대중
앎과 삶, 지식과 신행의 일치를 지향하는 사부대중

○지원자격 본방생(2년) : 기본교육기관 이수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비구 · 비구니 (2015년도 비구계 수계 예정자 포함)
청강생(2년) : 통학이 가능한 비구 · 비구니, 신심이 돈독한 불자
○모집인원 본방생 ○○명, 청강생 ○○명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5년 3월 8일(일) 까지 〈직접 또는 우편접수가능〉
○면 접 일 2015년 3월 8일(일) 오전 10시(면접 당일 접수가능)
○면접장소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남월료)
○입 학 식 2015년 3월 9일(월) 예정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3×4) 5매
○강 사 진 • 내전(內典) (상주강사)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스님 / 본 대학원 학감 혜창스님
• 외전(外典) (외래강사) 연세대 철학과 이광호 교수(전 지곡서당, 태동고전연구소장)
건국대 철학과 성태용 교수 / 공주대 명리학 김학목 교수
○문 의 처 010-3718-8090 (학감스님), 054)429-1700 (직지사 종무소)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운수리 216번지)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원장 지안